

- 주요 뉴스: 연준 주요 인사, 금리인하에 신중, 금리인하 뒷받침할 데이터 부족 가능성도 부각
 - ECB, 금융시장이 지정학적 위험 과소평가. 영국 3/4분기 GDP는 예상치 하회
 - 중국, 10월 위안화 신규대출은 전월비 급감. AI 반도체의 자국 기업 우선 공급 강조
 - 일본은행 총재, 완만한 물가상승이 목표. 정부의 경제성장 의지 지원 시사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금리인하 전망 후퇴, AI 버블 논란 지속 등이 영향
 - 주가 하락[-1.7%], 달러화 약세[-0.3%], 금리 상승[+5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12월 금리인하 기대 약화, 기술주 중심 매물 출회로 하락
유로 Stoxx600지수는 미국 증시 영향, 소비 관련주 약세 등으로 0.6%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섰다운 종료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이 배경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4%, 0.2%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연준 인사의 매파적 발언, 30년물 입찰 수요 부진 등이 원인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 영향 등으로 5bp 상승

※ 뉴욕 1M NDF 증가 1468.5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70.7원, 0.21% 상승). 한국 CDS 강보합

주요지수					주요금리				
		11/13일	11/12일	전일대비			11/13일	11/12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737.5	6,850.9	-1.66%	국채금리 10y	미국	4.12%	4.07%	+5bp
	유럽	580.67	584.23	-0.61%		독일	2.69%	2.64%	+5bp
	중국	4,029.5	4,000.1	+0.73%		영국	4.44%	4.40%	+4bp
	일본	51,282	51,063	+0.43%	CDS 5y	한국	22bp	22bp	+0bp
	한국	4,170.6	4,150.4	+0.49%		중국	44bp	42bp	+2bp
환율	달러지수	99.17	99.50	-0.33%	위험지표	EMBI+	-	282	-
	유로화	1.1633	1.1593	+0.35%		VIX	20.00	17.51	+14.22%
	엔화	154.56	154.79	+0.15%		WTI유	58.69	58.49	+0.34%
	위안화	7.0961	7.1110	+0.21%	원자재	구리	510.2	510.6	-0.07%
	원화	1,467.7	1,465.7	-0.14%		금	4,171.5	4,195.4	-0.57%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ì.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연준 주요 인사, 금리인하에 신중. 금리인하 뒷받침할 데이터 부족 가능성도 부각

- 샌프란시스코 연은 데일리 총재는 12월 금리 결정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동결’ 혹은 ‘인하’를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발언. 전반적인 방향은 중립이라고 부연. 12월 FOMC까지 여러 지표를 확인하면서 열린 자세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 데일리 총재는 최근까지 금리인하를 지지한다는 의견 제시
- 미니애폴리스 연은의 카쉬카리 총재는 일부 노동시장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연율)은 3% 부근에서 추이하며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 시장에서는 이를 금리인하에 다소 부정적이라는 의미로 해석
- 세인트루이스 연은의 무살렘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연율 2%)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추이하고 있어 추가 금리인하에 신중해야 한다고 발언. 보스턴 연은의 콜린스 총재 역시 인플레이션과 고용 위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현 수준의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
- 한편, 이날 하원에서는 본회의에서 임시예산안을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승인했고, 이후 트럼프 대통령도 해당 법안에 서명. 이에 사상 최장인 43일 동안 지속되었던 섯다운이 마침내 종료
- 이에 시장에서는 섯다운으로 그 동안 미뤄졌던 많은 경제 지표들이 뒤늦게나마 발표될 것으로 전망. 다만 일부에서는 해당 지표들의 경우 신뢰성이 떨어져 금리인하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분석(Bloomberg). 이날 CME의 FedWatch 또한 12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하향 조정(61.2%→51.9%)
- 다만 로이터가 공개한 이코노미스트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는 여전히 12월 0.25%p의 금리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 이는 이전 조사와 비교할 경우 오히려 소폭 상승한 결과이며, 금리인하를 예상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최근의 고용 둔화 등을 거론
- 백악관의 해시 국가경제위원장은 10월 고용보고서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하나, 이는 실업률 없이 일자리 증감만 나타내는 반쪽짜리 결과를 제공할 것이라고 지적. 섯다운으로 주당 150억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고, 파급효과를 고려할 경우 피해 수준은 GDP의 1.5%p 규모에 이른다고 언급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ECB, 금융시장이 지정학적 위험 과소평가. 영국 3/4분기 GDP는 예상치 하회
 - ECB의 클라우디아 부흐 은행감독위원장은 금융시장이 지정학적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역내 모든 은행이 관련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이에 현 상황에서의 규제 완화는 은행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
 - 영국의 3/4분기 GDP는 전기비 0.1% 증가. 이는 전기(0.3%)에 비해 둔화된 결과이며 예상치(0.2%) 대비로도 낮은 수준. 사이버 공격에 따른 일부 자동차 공장의 생산 감소가 주요 원인. 4/4분기에는 0.3%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중국, 10월 위안화 신규대출은 전월비 급감. AI 반도체의 자국 기업 우선 공급 강조
 - 인민은행에 따르면, 10월 위안화 신규대출은 0.22조위안으로 전월(1.29조위안) 대비 큰 폭 감소. 시장에서는 부동산 부문의 장기 침체, 미국과의 무역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 및 가계가 신규 차입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
 - 정부는 미국의 첨단 반도체 對中 수출 제한에 따른 AI 반도체 공급 부족을 고려하여 SMIC(中芯國際)에게 화웨이 등 자국 기업에 AI 반도체를 우선 공급하도록 지시. 화웨이는 중국의 국가전략기업
- 일본은행 총재, 완만한 물가상승이 목표. 정부의 경제 성장 의지 지원 시사
 - 우에다 총재는 임금 상승과 경제 성장을 동반한 완만한 물가상승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언급. 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강조하고 있는,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 카타야마 부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연율 2%)에 이르지 못했다고 언급했는데, 이 또한 정부 정책에 동조할 것이라는 신호로 평가
 - 한편, 10월 기업물가지수는 전년동월비 2.7% 올라 전월(2.8%)에 비해 둔화. 항목별 기준으로는 식품 및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고, 자동차 수출 가격은 하락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1/14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10월 소매판매 및 생산자물가, 캔자스시티 연은 슈미드 총재 발언
 - 유로존 3/4분기 GDP, 중국 10월 소매판매 및 산업생산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신용시장, Chapter 7 파산 신청 증가는 위험 신호일 소지 - Financial Times

(To see how the US credit boom could end, turn to Chapter 7)

- 최근 Tricolor, Sonder의 Chapter7 파산 신청(기업 청산이 목적)이 연이어 발생. 역사적으로 Chapter7 파산 신청이 매우 적었음을 고려한다면 이는 이례적 현상. 통상적으로 미국 내에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기업조차 회생대출을 받을 수 있기에, 일부에서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시도조차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
- 이에 시장에서는 해당 현상을 새로운 취약성이 부각되는, 신용 사이클 후반부의 징후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 이를 반영하여 JP Morgan 등 일부 사모대출 지원업체들은 자금 제공을 중단. 향후 Chapter7 파산 신청이 증가할 경우 관련 혼란이 더욱 증폭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

■ 미국 경제, K자형 구조 주장은 현실 반영 시 설득력이 부족 - Financial Times

(Does the K-shaped economy theory even make sense?)

- 미국 경제가 양극화 심화를 의미하는, K자형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논란의 소지가 존재. 실제로 소득 계층별 지출은 안정적이며, 상위 계층 지출이 전체의 절반에 미치지 않는 상황(Bureau of Economic Analysis)
- 아울러 부유층의 경우 저축 비중이 저소득층보다 높으며, 이에 소득이 늘어도 급격한 지출 증가 가능성은 낮은 편. 이는 상위 고소득자가 소비 성장을 주도한다는 K자형 논리에 위배. 또한 K자형 구조라면 성장 둔화를 유도할 수밖에 없지만, 실제 4/4분기 성장률은 2%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美中 무역갈등 완화, 중국의 수출경쟁력 보존으로 개도국 피해 지속될 우려 - 블룸버그

(China's Trade Model Is Built on Keeping Others Poor)

- 美中 무역합의로 관세 및 수출규제 완화가 예상. 그러나 개발도상국은 중국의 글로벌 무역지배력 보존으로 주요 서방국에 비해 상대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 중국은 인건비 상승에도 에너지 비용, 운송 효율 측면 등에서 상대적 우위를 나타내기 때문
- 한편, 역사상 미국 등의 글로벌 무역강국은 여타 국가에 공급 확대, 비용 절감을 통한 생산 등의 형태로 성장을 허용.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제조업과 공급망의 모든 단계를 장악. 또한 무역으로 얻은 수익을 국내 생산에 투자하거나, 글로벌 제조업 역량 확대 시도를 지속. 이는 결국 개도국의 잠재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

■ 미국의 무역정책 혼란, 대법원 판결만으로는 바로잡기 어려운 문제 - 블룸버그

(Supreme Court can't mend US trade policy by itself)

- 대법원 심리에서 보수·진보 성향 대법관 모두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기반을 두고 있는 관세에 회의적으로 반응. 무역적자를 비상사태로 본 근거, 중요 질문 원칙 등이 쟁점이며, 특히 관세가 세금인지에 관한 모순이 극명
- 대법원이 IEEPA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무역 파트너 협상 ▲관세 중단 여부 ▲소비자기업 비용 보상 문제 등으로 혼란이 불가피. 행정부는 다른 법적 권한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장기 경제 불확실성을 초래
- 과도한 행정권 행사에 대한 헌법적 제동은 중요하지만, 이미 누적된 통상정책의 피해를 대법원 결정만으로 바로잡기에는 한계. 궁극적 해결책은 의회와 행정부에 있으며, 관세 중심의 접근을 피해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회복할 필요

■ 美 증시의 AI 버블, 붕괴 시 소비여력 약화 및 경기침체 초래할 소지 - The Economist

(How markets could topple the global economy)

■ 미국의 AI 버블 논란, 수요 고려 시 단기간 내 재앙 발생 가능성 낮은 편 - Financial Times

(AI bubble trouble talk is overblown)

■ 미국 빅테크 실적, 아직 양호하지만 일부 AI 스타트업의 손실 증가는 위험 요인 - WSJ

(Big Tech's Soaring Profits Have an Ugly Underside: OpenAI's Los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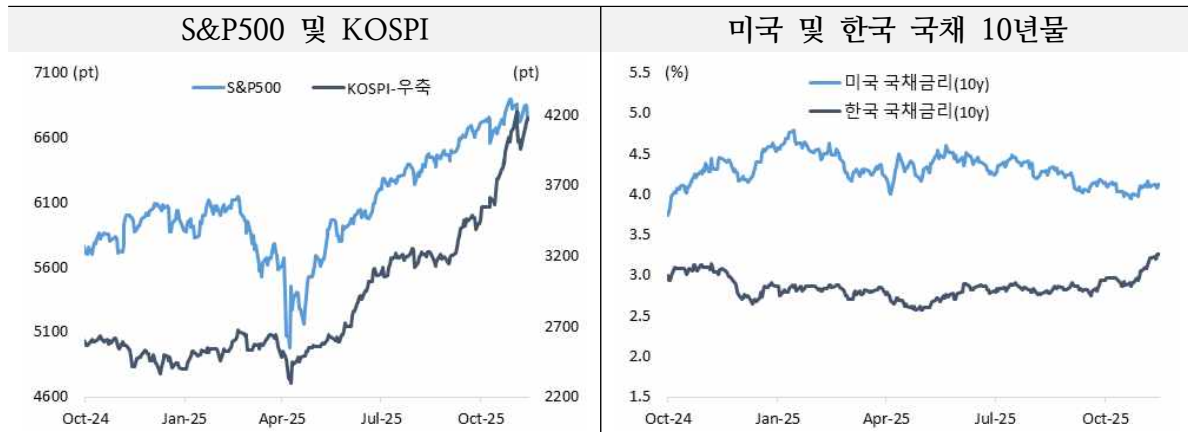
■ 미국 섯다운 종료 후 국채가격 하락, 데이터 폭증에 의한 변동성 증가 우려 반영 - 블룸버그

(Treasures Stumble as Shutdown Ends and Traders Brace for Sw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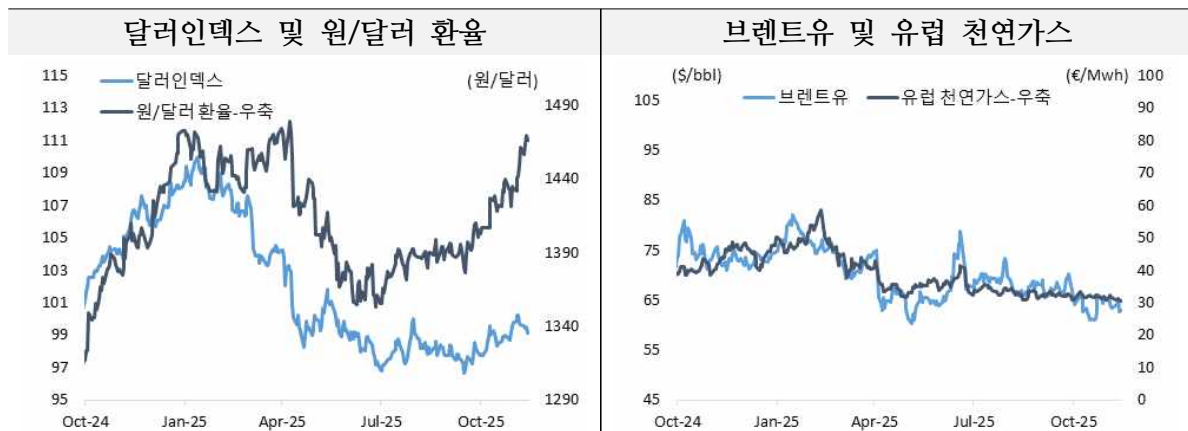
■ 미국과 중국의 충돌, 다국적기업에는 지정학 대응 능력이 절실 - 블룸버그

(Multinationals aren't ready for the US-China clash)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